

바노의 성모님



시대적 배경은 이 시기에 성모님께서 나타나셨어야만 했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중요!!

시대적 배경

바노는 벨기에의 고원지대에 있는 시골 마을로 1933년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의 발현 당시 바노의 주민은 325명 뿐이었다. 그들은 평화롭고 부지런한 산골 생활을 하였다. 바노의 주민들은 지금도 가난하지만 옛날에도 가난하였다. 1차 대전 당시 전쟁이 터지자 저지대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산으로 피난하였고 이 산골에서 살아남는다면 이 마을을 '우리의 모후 바노' 라고 부르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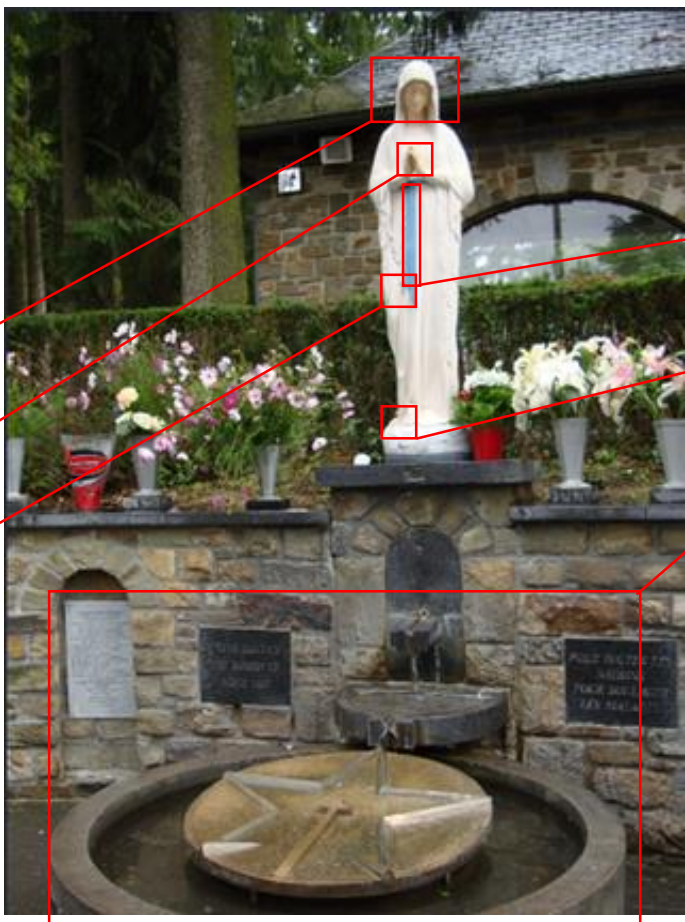


성모님은 신자가 아닌 저에게도 나타나셨어요~

발현 당시 상황

1933년 벨기에 바노에서 비신자였던 12세 소녀 마리에트 베코에게 발현하시어 자신을 '가난한 자의 동정녀' 라고 말하였다. 마리아는 가난하고 고통 받는 이들을 위로하러 왔다고 밝히고 기도를 많이 바칠 것을 요청하였다.

성모님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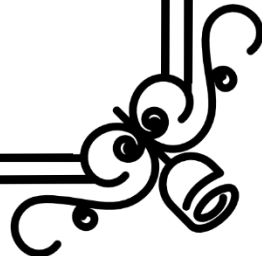


고개는 약간 아래로
손은 기도손
오른손에는 묵주

허리에는 푸른 띠
오른발 위에는 장미꽃 한 송이

치유의 샘

루르드의 성모님과 비슷한 형상





발현과 메시지

1933년 1월 15일 주일

첫번째 나타나신 성모 마리아께서는 미소만 지으셨다.
너무 감격한 마리에트 베코는 성모 마리아·심을 느끼고는
교리반에도 열심히 나갔다. 오로지 성모님 마음에 들기를 원하셨다.

1933년 1월 18일 수요일

작은 샘이 있는 길 옆에 서신 성모님께서는 처음으로 말씀하셨다.
"네 손을 물에 담가라. 이 샘은 나를 위하여 보존되어 왔다."
"잘 있거라. 다시 볼 때까지"라고 하시고는 떠나가셨다.

1933년 1월 19일 목요일

"나는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이다" 이렇게 성모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밝히셨다.
"이 샘물은 모든 백성들과 병자들을 위하여 보존되어 왔다."
성모님께서 떠나시면서 마리에트 베코에게 말씀하셨다.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잘 있거라. 다시 볼 때까지"

1933년 1월 20일 금요일

"나는 작은 성당을 하나 원한다."

1933년 2월 11일 토요일

"나는 고통 받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
"다시 볼 때까지 안녕"

1933년 2월 15일 수요일

본당 신부가 증거를 요청한다고 하자 성모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는 떠나셨다.
"나를 믿어라. 나도 너희를 믿겠다."
"기도 많이 하여라. 다시 볼 때까지 안녕"

1933년 2월 20일 월요일

성모님께서 미소 지으시면서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딸아, 기도 많이 하여라. 다시 볼 때까지 안녕"

1933년 3월 2일 목요일

"나는 천주의 모친이며, 구세주의 어머니이다. 기도 많이 하여라.
잘 있거라" 하시면서 마리에트 베코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성호를 그어 축복을 하신 다음 떠나가셨다.



바노의 성모님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다.

기도할 것을 권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구원을 강조한다.

또한 마지막 발현에서 "나는 구세주의 어머니, 하늘의
어머니"라고 밝힘으로써 마리아에 대한 교회의 전통적
가르침과 일치함을 확인시켜 주었다.

바노 성모님의 발현 핵심은 '샘물'에 있다.

"모든 민족들과 병든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이 샘을
마련했다"고 했다. 순례자들에게는 '치유의 샘'이 되었지만
신학자들은 인류를 생명의 샘인 그리스도와 일치시키고자 함을
상징하며 아울러 이 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보편성을 드러내 주고 있다고 한다.

또한 "많이 기도할 것"과 기도하기 위한 "작은 성당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메시지는 '구원의 주재자'로서 인간과 함께
전구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